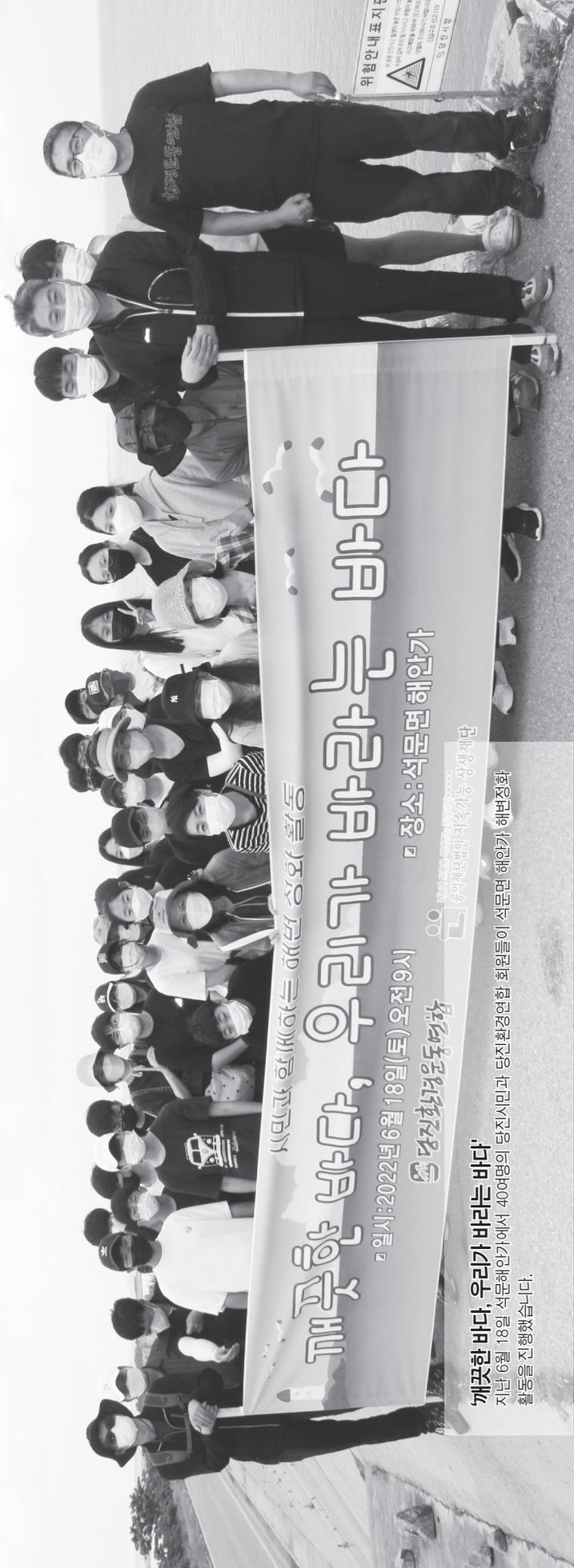


순풍물결

통권 274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7 2022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
지난 6월 18일 석문해안가에서 40여명의 당진시민과 당진환경연합 회원들이 석문면 해안가 해변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석문방조제 환경정화활동 펼쳐



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당진환경연합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 진행

- ▶ 발행일 2022. 7.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이달의 시
| 길 / 윤동주
- 4 지역환경초점1
| 당진환경운동연합, 석문방조제 환경정화활동 펼쳐
- 5 지역환경초점2
| 물 건너간 당진시 버스 공영제
- 6 지역환경초점3
| 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 7 지역환경초점4
| [논평]현대제철, 누락되는 대기오염 배출 철저히 관리해야
- 8 지역환경초점5
| 당진에 퍼진 가스 냄새..원인은 대산공단?
- 9 지역환경초점6
| 당진화력 저탄장 자연발화로 화재 발생
- 10 지역환경단신1
| 신서천화력 인근 주민들 "농작물 등에 낙진 피해"
- 11 지역환경단신2
| 10명 중 5명이 반대... 그럼에도 강행된 '공주보 담수'
- 12 지역환경단신3
| 당진환경연합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 진행/ 당진지속협 20주년 행사 당진시장상 표창
- 13 전국환경초점1
| 전국탈핵행동, 부산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 14 전국환경초점2
| 수산물까지 오염시키는 녹조 독소, 국민건강 책임 방기하는 정부 규탄한다.
- 15 전국환경초점3
|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원칙
- 16 전국환경초점4
| 윤대통령 "안전 중시 버려라...원전업계는 전쟁터" 발언 논란
- 17 6월 살림살이
- 18 석탄씨를 구해줘
| 22화. 가짜뉴스에 주의합니다
- 20 6월 활동소식
- 22 7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길

윤동주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에다 잃었는지 몰라
 두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까지
 저녁에서 아침까지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에 태어나 1945년 2월 16일에 운명했다.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시인이자 작가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석문방조제 환경정화활동 펼쳐 수거된 쓰레기 대부분 폐어구, 적극적 관리 필요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이 18일 석문방조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라는 이름으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해변 환경정화활동은 학생과 시민 등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9시 당진문예의 전당에서 출발해 석문방조제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고 12시 20분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해변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석문방조제에 돌틈에 버려져 있는 스티로폼 부표, 그물, 밧줄 등 폐어구와 함께 비닐, 페트병 등 생활쓰

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송악읍 김종균씨는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수거한 쓰레기의 대부분이 스티로폼 부표 같은 폐어구였다”며 “시청 등 행정기관과 어촌계 등에서 폐어구가 방치돼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두 번째 해변 환경정화활동에 이어 9월, 10월에도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당진신문]

지난 6월 18일 석문방조제 일원에서 당진시민들과 함께 해변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물 건너간 당진시 버스 공영제

당진시, 81억에 당진여객 매입 추진에 당진여객 입장 철저히 망 놓지 못하는 당진시..“독자 노선 개설..부분 공영제 고려“



구터미널 버스 승강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당진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버스 공영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진여객이 회사 매각 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유에서 매각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중략)

우여곡절 끝에 81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한 당진시는 버스 공영제 실현을 위한 당진여객과의 협상 테이블을 열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주요 쟁점은 당진여객에서 회사를 매각하면 부과해야 하는 세금을 어떻게 해결할지였다. (중략)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고 여겼던 당진여객 입장에서는 굳이 많은 세금을 지불하면서까지 회사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지난 5월 당진시에 회사 매각 의사 철회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중략)

포기할 수 없는 공영제..독자노선 만들까?

당진여객에서 매각 의사를 철회했지만, 당진시는 버스 공영제에 대한 한 가닥의 희망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진시의 마지막 희망은 노선

체계 개편용역을 통한 부분 공영제다. 노선체계 개편용역은 지난 40여 년간 당진여객 노선에 대한 용역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운행 노선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용역이다. (중략) 용역에서 새로운 노선이 제시되면, 당진시에서 해당 노선에 대한 교통수단을 마련해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인 것인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략)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중략)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당진여객에서 노선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그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진여객을 매입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진시의회와 오성환 당선인의 뜻도 있는 만큼 직접 운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하 생략)

[출처: 당진신문 일부 발췌]

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고등법원 '공사중지' 판결에도 공사 강행
 “서둘러 철탑 완공해 법원 판결 무력화 의도”
 공사 중 발생한 토사 신고 없이 불법 투기
 당진시 “한전, 다음주까지 원상복구 하기로”



한국전력공사가 소들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허가 없이 남원천 일대에 투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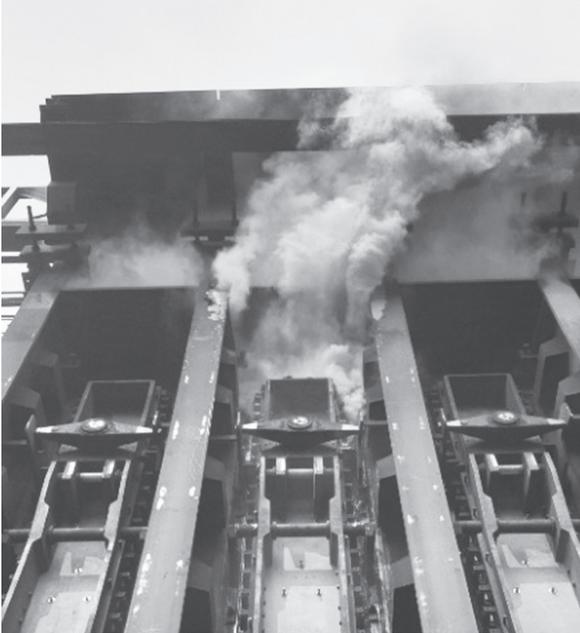
당진시는 지난 3월 30일, 한전의 345kV 북당진~신당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 및 적치장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한전은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4월 1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당진시는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에 대해 항고했고, 2심 재판부(대전고등법원)에서는 지난 5월 16일 당진시가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한전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즉, 당진시가 한전에 내린 공사중지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한전에서는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사이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강행하면서 소들섬 인근에 34번·35번·36번·37

번·38번 등 5개의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재판 심리 중에 서둘러 철탑 공사를 완료해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일개 공기업 중 하나인 한전이 사법부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철탑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신고도 없이 남원천 일대에 불법 투기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진시 건설과에 민원이 접수되자 한전은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 건설과 하천팀장은 “하천 수위 등에 문제로 하천 내에는 토사 등을 투기할 수 없다”며 “한전에 조치를 요구했고, 다음주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당진시대]

[논평] 현대제철, 누락되는 대기오염 배출 철저히 관리해야

지역주민에게 즉시 정보 공개해 불신 극복해야



코크스 가스 누출 모습 [사진제공 :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지난 16일 현대제철에서 코크스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는 소식이 공중과 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현대제철이 누락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보도된 코크스 유해가스 배출에 대해 현대제철은 공정 중 발생한 돌발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현대제철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물론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정 돌발상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현대제철은 소결로 환경저감설비가 고장난 채로 5년간 공장을 계속 가동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큰 홍역을 치렀고 이후 소결로 대기오염저감설비를 교체해 2019년부터 굴뚝자동측정기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매년 굴뚝자동측정기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거의 매달 발생하다시피 하는 유색연 배출, 공정 돌발상황 등 배출량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역시 절실하다.

또한 돌발상황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인근 지역주민에게 바로바로 정보를 공개하고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뒤늦게 언론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접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현대제철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제철이 철저한 환경관리, 공정 개선을 통해 공식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오염물질 배출 상황 정보를 바로바로 공개해 불신을 극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6월 2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에 퍼진 가스 냄새.. 원인은 대산공단?

20~21일 이틀간 악취 발생..시민들 메스꺼움, 어지러움 호소
이에 앞서 20일 오전 서산시 악취 민원..대산공단서 발생 확인
당진시, 원인으로 대산공단 지목..“여러 가능성 두고 조사 중”

당진 1,2,3동과 정미면 등 일부 지역에서 원인 모를 가스 냄새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20일 저녁부터 당진 정미면과 동 지역 일대와 정미면에서 심한 가스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이 냄새는 21일 저녁까지 이어졌다. (중략)

실제로 이 악취는 2019년 당진 지역에서 가스 냄새와 유사한 악취로 민원이 크게 발생했던 사건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냄새가 석문면 방향이 아닌 당진동 지역과 정미면에 집중되면서 원인 파악이 더욱 늦어지고 있다.

일단 당진시는 악취의 원인으로 서산 대산공단을 지목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산 시내에서 가장 먼저 가스 냄새 악취로 민원이 접수되고, 그날 오후 충남서북부 환경관리팀에서 대산공단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

반면, 서산시 입장은 다르다. 서산시는 대산공단에서 악취가 퍼진 것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20일부터 21일 관측된 풍향은 대산-삼길포 방향인 북서풍이었기 때문에 정미면과 당진 시내로 악취가 확산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략)

그러나 당진시는 대산공단에서 관측된 북서풍은 석문면과 대호지면은 아니더라도 당진 시내와 정미면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라고 보고, 대산공단에서 발생한 악취가 당진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진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오전부터 서산 시에서 먼저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해 현장 점검을 했고, 이후 그날 저녁 당진에서도 가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받았다”면서 “대산공단에서 퍼졌을 것으로 추정하며 석문면과 대호지면으로 우선 조사를 했지만, 측정된 냄새는 없었다. 그리고 두 지역에서는 악취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측된 풍향 북서풍은 석문과 대호지 방향이 아닌 정미와 시내로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런 만큼 지난번 악취가 발생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시내에서 가스 냄새가 더욱 심했을 것”이라며 “악취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악취 배출이 멈춰지고 풍향이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행히 22일 새벽부터는 남풍이 불고 있어 냄새가 전날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당진신문 일부 발췌]

당진화력 저탄장 자연발화로 화재 발생

주민 “석탄 타는 냄새 나” 당진화력 “바람 타고 악취 전해졌을 것”



당진화력 구글 위성사진, 바다 쪽 검은색 부분이 야외 저탄장.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본부장 임승환, 이하 당진발전본부) 저탄장에서 자연발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당진발전본부에서는 가끔씩 자연발화로 인한 저탄장 화재가 발생해왔다. 저탄장에 저장된 석탄의 표면이 산화되면서 열이 발생해 별도의 점화원이 없어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부터 당진발전본부에서 석탄 타는 냄새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에 대해 당진발전본부 측은 “지난 2일 자연발화에 취약한 석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악취가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상탄작업 후 바람의 영향 때문에 발전소 주변 민가까지 일시적으로 악취가 전해진 특수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적인 주수 및 중기 압탄작업을 통해 현재 발전소 내 악취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자연발화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당진시대]

신서천화력 인근 주민들 "농작물 등에 낙진 피해"



농작물과 자동차 유리(아래 왼쪽)에 이물질이 내려앉은 모습(미세먼지 고압송전선로 피해대책위 제공)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으로 농작물 등이 낙진 피해를 봤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미세먼지 고압송전선로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사나흘 전부터 신서천화력발전소 반경 1km 내에 재배하는 농작물에 구멍이 나거나 고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고추, 배추, 들깨, 감나무 등 농작물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주차 차량 위에도 낙진이 늘어붙었다. 대책위 측은 "발전소 주변에서만 피해가 나고 있어 발전소 굴뚝을 통해 배출하는 이물질에 따른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정확한 피해 물

질 분석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조사에서는 마을 전체에 피해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고, 군은 민원이 제기된 기간이 화력발전소 시운전 기간과 겹치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설비 점검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일단 피해를 봤다는 주민들과 함께 사료를 채취해 병충해인지, 발전 과정에서 나온 건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한 뒤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10명 중 5명이 반대... 그럼에도 강행된 '공주보 담수'

금강수계 보 민·관협의체 의견 취합 전에 이미 담수 단행



지난 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항의방문 기자회견

환경부가 시민·환경단체의 강력 규탄에도 지난 15일 공주보 담수를 강행했다. 정진석(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주보 가뭄해결을 위해 담수를 해야 하며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이루어진 담수였다. 금강은 담수나 보 개방 과정을 금강수계 보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해 왔다.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토대로 보를 운영해 왔으며 협의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 공주보 담수는 기존의 과정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다.

민간위원 과반수 반대에도 담수 강행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협의체 회의에는 33명 중 16명이 의견서를 전달했다. (중략) 협의체 회의 회신 결과, 정부 측 인사 6명(기관)을 제외한 민간위원 10명 중 담수에 찬성한 위원은 3명밖에 되지 않았다. (중략) 민간위원 5명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략)

협의체 회의가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면 담수에 대한 여러 부정적 의견이 교환되었을 것이며, 가뭄과 관련한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간전문가 중 공주보 담수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런 의견을 취합하고서도 위원회의 서면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담수를 강행했다. (중략) 국토부 산하 금강홍수통제소는 (중략)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정부의 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가뭄효과에 대한 추가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이는 민간의원으로 참여한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의 모든 의사가 존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협의체 의견 취합도 전에 담수 결정 보도자료 배포 이번 담수는 최소한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 강행을 위해 협의체를 들러리로 전략시켰다. 사업강행을 결정해 놓고 협의체의 의사를 받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략) 협의체 의견에 취합이 끝나기도 전인 오후 2시,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담수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협의체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협의체를 성실히 운영해왔다. 정부의 기조와 다르더라도 (중략) 민관협치를 실행하는 중요한 거버넌스로 금강보민관협의체를 운영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번 담수 결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이하 생략)

[출처: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당진환경연합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 진행 1년 6개월 만에 재개, 신입회원 8명 참여



지난 6월 15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을 가졌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2021년부터 계속 미뤄왔던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을 1년 6개월 만에 재개했다. 15일 저녁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8명의 신입회원과 공동의장단, 사무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진행된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은 의장단 인사, 신입회원 소개, 당진환경운동연합 활동 소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당진환

경운동연합 활동소개는 환경운동연합의 핵심가치와 목표, 환경운동연합 활동분야,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역사와 조직 체계, 창립 이후 활동내용이 담겼다. 새내기 회원들은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됐으며 앞으로 회원으로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 사무국]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시장 표창 수상



당진환경운동연합이 21일 당진시청에서 개최된 민관협력 20주년 행사에서 당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개최된 행사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당진시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표창을 받게 됐으며 손창원 공동의장이 행사에 참여해 표창패를 받았다.

[글: 사무국]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21일 당진시장 표창상을 수상했다.

전국탈핵행동, 부산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18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6.18 전국 탈핵행동

고리2호기폐쇄촉구부산시민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고리2호기 폐쇄!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반대! 6.18 전국탈핵행동(전국탈핵행동)'이 18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전국탈핵행동은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됐듯이 고리2호기 역시 영구정지 돼야 한다는 의미로 고리1호기 영구정지일인 18일에 맞춰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광주, 영광, 울산, 경주, 밀양,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참석했다. 전국탈핵행동 관계자는 "1983년 가동이 시작된 고리2호기는 내년이면 수명을 다해 영구정지 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한수원이 주기적안전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계속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략) 전국탈핵행동에 따르면 최근 고리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 화재가 발생해 자동 정지했으며 그동안 태풍,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원자로 정지 등의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설비를 개선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에 다른 에너지원

보다 경제적이다라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 포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핵폐기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에 즉각 폐쇄해야 한다는 태도다. 첫 번째 발언자로 무대에 오른 김정환 부산YWCA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가 원안위 재가동 승인 일주일 만에 원자로가 정지됐다"라면서 "부·울·경 800만 시민들이 핵발전소의 위험에 노출됐다"라고 말했다. (중략) 밀양에서 온 윤여림씨는 "좁은 국토에 핵발전소가 많고 폐쇄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수명연장은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전남 영광에서 온 농부 노병남씨는 발언대에서 "한수원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수명연장은 과학적이지도 기술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영광1호기도 수명연장 없이 폐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고리2호기 폐쇄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며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 후 광복로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하 생략)

[출처: 전기신문 일부 발췌]

[논평] 수산물까지 오염시키는 녹조 독소 국민건강책임 방기하는 정부 규탄한다

○ 지난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강 하류에서 발생한 녹조 독소가 강 환경뿐만 아니라 하굿둑 바깥 바다까지 오염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쌀을 포함한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이래 수산물까지 녹조로 위협받는 현 상황은 바야흐로 녹조 재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방만한 태도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독소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 국민건강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한다.

○ 녹조 독소는 농작물을 넘어 조개, 게 등 수산물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쳐 국민건강을 광범위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제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금강 하굿둑 내부는 물론 하굿둑 바깥 갯벌 생물에서 녹조 독소가 지속해서 검출됐다. (중략) 또 금강 하굿둑 연구 결과는 낙동강 하굿둑 부근 역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 정부 시기 금강은 하굿둑 부근에서만 녹조가 창궐했으나, 낙동강은 8개 보로 인해 전 구간에서 녹조가 극심하게 발생했고, 이 물이 결국 바다로 유입된다. 금강 하굿둑에서 매년 바다로 수 톤의 녹조 독소가 방류된다고 하면 낙동강은 더 많은 녹조 독소가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유입된 녹조 독소는 갯벌 생물에 축적되고, 이를 섭취하는 해양 생물은 물론 우리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 학계와 시민단체가 녹조 독소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해서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의도적 무관심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녹조의 독성분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인체에 흡수될 경우 각종 간 및 뇌 질환, 생식기능 장애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중략)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녹조 핀 물로 농사를 지어도 괜찮다는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고,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사례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각 부처는 문제 해결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 정부는 국민건강의 책임을 방기하는 기만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고,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은 거대한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극심한 녹조 문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심화하려 한다. (중략) 정부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에서부터 현 사태의 해결을 시작하고, 국민건강과 강, 바다의 자연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22. 6. 22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첫 단추부터 잘못 꿰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원칙 수립하라



지난 6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탈핵시민행동이 공동주관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중략) 그러나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중략)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핵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써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 새정부는 에너지정책 국정과제 첫번째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중략) 원전은 처치 곤란의 핵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는 명백한 환경적 오염원이며, 여전히 한 해에도 수십 건의 비계획적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에너지원이다. (중략) 녹색분류체계나 민간주도의 에너지산업 및 기술 육성 등과 같은 시장주의적 관점으로만 에너지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정부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방향이다. 기후위기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인류와 비인간 생명들 모두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산업과 기술 육성에만 치중하고 있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중략) 새정부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의 빠른 퇴출은 커녕 현재도 건설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조차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기업이 석탄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정책 시그널을 형성해야 한다. (중략)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분산 에너지 시스템에 맞게 에너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중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의 지출을 늘리고 계획입지제, 이익공유제, 환경성 강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다. (중략) 기후위기 대응, 석탄 발전의 조기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중단은 거스를 수 없는 지구의 경고, 기후 과학의 경고다. 새정부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화석연료 활용 방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원전 위험 가중과 같은 무책임하고 영성환 방향을 철회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 안전한 에너지원 중심의 정책을 새로 짜야한다.

2022.06.21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탈핵시민행동

윤 대통령 “안전 중시 버려라… 원전업계는 전쟁터” 발언 논란

원전업계 간담회 참석 정부관료들에게 주문
“원자력계 종사자들조차 동의 못할 것
국민과 국가 안전 책임자가 할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외 원전업체 방문에 동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원전업계를 살리기 위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주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선발주 등 과감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원전 안전을 경시하라는 맥락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당부라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공사 중이거나 운영허가를 앞 둔 원전은 물론 운영 중인 기존 원전의 안전점검에 영향을 끼쳐 재난의 불씨를 남겨 놓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들이 관계 기관들의 안전점검을 불신해 원전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 함께 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금 여기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원전 업계 못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금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 상태다. 물과 영양분을 조금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전업계가 전시’라는 표현은 원전업계가 호소하는 어려운 상황을 강조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전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장관들에게 ‘안전’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이를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주문한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공직사회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들은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변호사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정말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사고가 나면 국가적 방산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떤 경우에도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원전을 두고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 위원은 “대통령이 정말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만약 고리 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화재가 나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피난구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는데,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방사능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 나라의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은 부적절한 발언을 취소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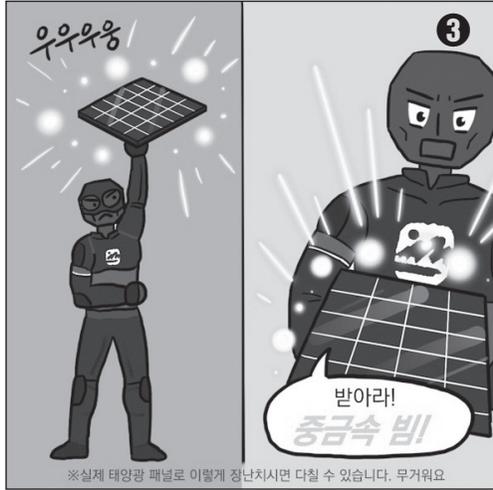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2년 6월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 수 입 | | | 지 출 | | |
|--------|--------|------------|-----------------|----------------|------------|
| 항 | 목 | 금액 | 항 | 목 | 금액 |
| 이월금 | 전월 이월금 | 23,093,267 | 인건비 | 급여 | 4,540,000 |
| 회 비 | 개인회비 | 6,465,000 | | 퇴직적립금 | 365,820 |
| | 법인회비 | 120,000 | | 사회보험료 | 462,610 |
| | 계 | 6,585,000 | | 계 | 5,368,430 |
| 일반후원금 | 개인후원 | 94,000 | 경상비 | 복리후생비 | |
| | 법인후원 | | | 세금과공과금 | 77,700 |
| | 계 | 94,000 | | 소모품비 | 385,000 |
| 사업후원금 | 사업후원금 | 0 | | 지급수수료 | 493,980 |
| | 계 | 0 | | 기타운영비 | 151,900 |
| 단체지원금 | 단체지원금 | 0 | | 계 | 1,108,580 |
| | 계 | 0 | 사업비 | 기후에너지사업 | |
| 보조금 | 기타사업 | 0 | | 생태보전사업 | 1,003,750 |
| | 계 | 0 | | 생화환경사업 | 4,999,500 |
| 지원금수입 | 지원금수입 | 0 | | 조직 회원사업 | 1,176,340 |
| | 계 | 0 | | 모금사업 | |
| 기타수입 | 기타수입 | 11,372 | | 연대사업 | 361,600 |
| | 계 | 11,372 | | 기타사업 | |
| 전입금 | 전입금 | 0 | | 계 | 7,541,190 |
| | 계 | 0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 0 |
| 차입금 | 차입금 | 0 | | 계 | 0 |
| | 계 | 0 | 이월액 | 이월액 | 15,765,439 |
| | | | | 계 | |
| 월수입 총계 | | 6,690,372 | 월지출 총계 | | 14,018,200 |
| 수입 합계 | | 29,783,639 | 지출 합계 | | 29,783,639 |

석탄씨를 구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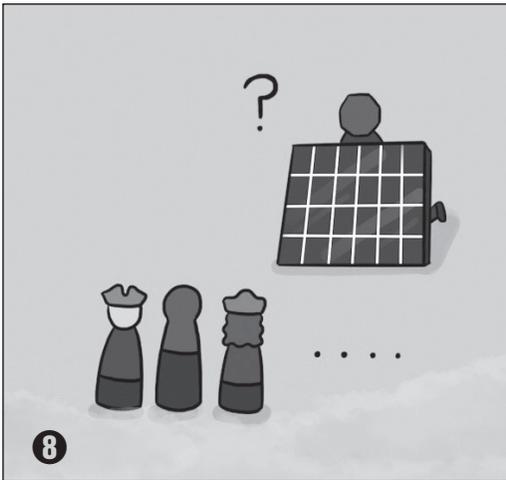
제 22화 가짜뉴스에 주의합시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 및 에너지 인식 대전환을 위해 제작된 환경운동연합 브랜드 웹툰입니다.

석탄씨를 구해줘

제 22화 가짜뉴스에 주의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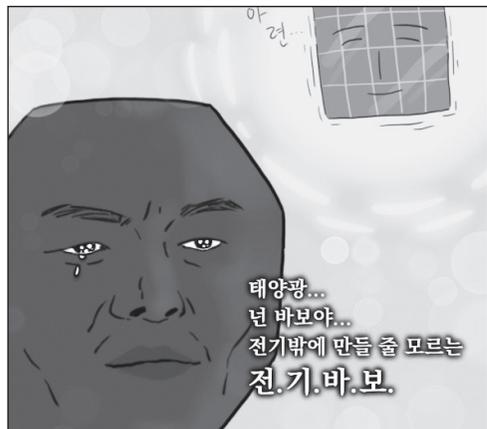
태양광 중금속, 빛 반사, 전자파 등, 아직도 재생에너지 가짜뉴스로 골치가 아프신가요? 석탄발전이야말로 인간에게나 지구에게나 유해하다는 게 '진짜'입니다.

<작가의 말>

은아 : 형광등 100개 켜 놓은 미모... 그것이 태양광

우현 : 태양광에 중금속이 있다고요? 빛 반사가 어떻게 되고요?

석탄 :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6월 운영위원회 회의

지난 6월 7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6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촉구 기자회견 참가

6월 7일 금강,영산강 84개 시민환경단체가 환경부 앞에서 보 처리방안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김정진 사무국장이 참여했습니다.



6·10민주항쟁 기념식 참가

6월 10일 충남도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제35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천안 신부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황성렬 공동의장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비전과 혁신을 위한 전국 활동가 워크숍

6월 16일 천안광덕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비전과 혁신을 위한 전국 활동가 워크숍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회의

6월 16일 천안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6월 30일 당진시청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1 일반사업

- ❖ 7/01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 인수인계 - 내포혁신플랫폼
- ❖ 7/04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이사회 - 온라인
- ❖ 7/05 당진환경운동연합 7월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7/06 기후정의버스 당진화력 방문 정의로운전환 워크숍 - 당진화력
- ❖ 7/07 에코생협 생활재위원회 - 에코생협 당진점
당진시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설명회 - 당진복지타운
충남도 환경계획 수립 도민참여단 TF 회의 - 충남지속협
- ❖ 7/13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 회의 - 당진지속협
- ❖ 7/14 지구의날 평가 회의 - 당진지속협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 온라인
충남시민사회활성화 권역별 워크숍 - 내포혁신플랫폼
- ❖ 7/15 환경운동연합 재생에너지협의회 회의 - 온라인
- ❖ 7/19 부산 정의로운 전환 간담회 - 부산
- ❖ 7/20 철강산업 탈탄소 공유 회의 - 온라인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회 - 내포혁신플랫폼
- ❖ 7/25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전체회의 - 온라인
- ❖ 7/26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주부환경지킴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7/26(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 **새내기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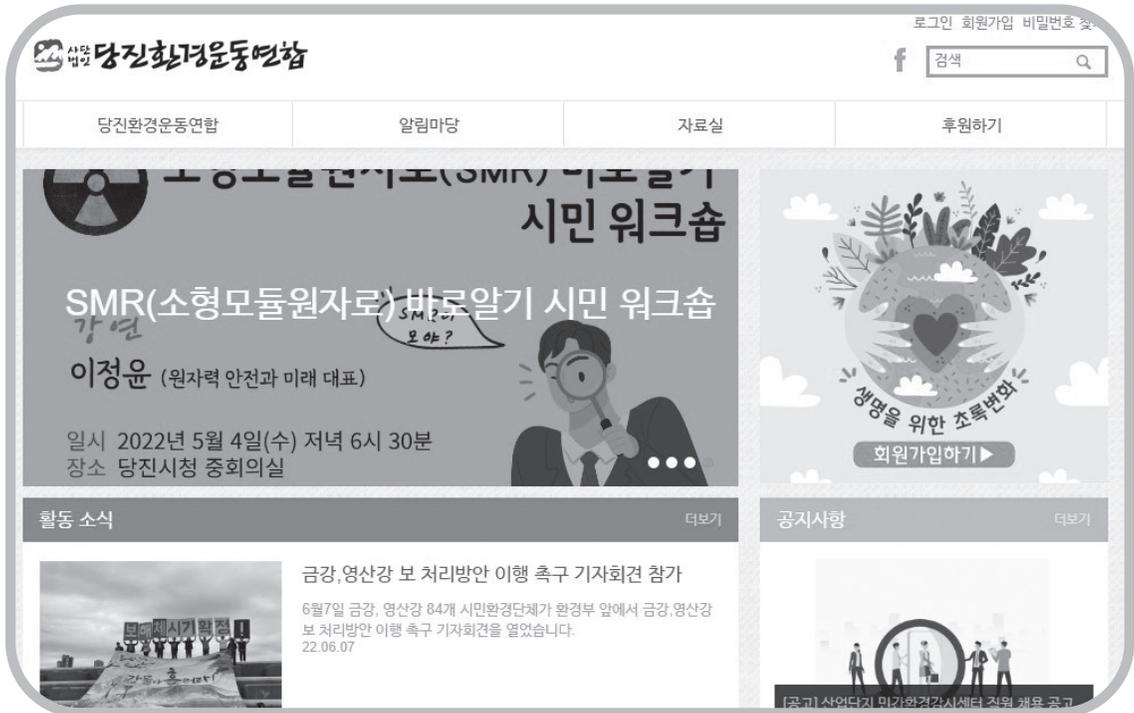
김현웅(송산면), 박보균(석문면), 오복환(채운동)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삼욱 강은구 강은식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곽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김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권기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철 김동환 김병구 김병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신규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용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곤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한순 김향근 김현기 김현립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장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철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규섭
 박근성 박기남 박기술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래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연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태식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영기
 손영미 손중순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걸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완순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양정만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원종경 유경자 유
 성 유영석 유중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철 이보은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순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중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혜선 이혜운 이현숙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분환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한 정중섭 정찬관 정치용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희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준국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대실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묵 최오상 최원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희 최종길 최종원 최지용 최창용 최혜인 최희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정수 함효진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위너교육이벤트 정우건설(주) 율곡어린이집 해송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당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이사했어요!

당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가 20여년만에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식과 활동내용, 늘푸른물결 소식지, 재정보고 등 항상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dj.ekfem.or.kr로 들려주세요~



회원의 집 광고

상가임대

- ※ 대지 300평, 단층 건물 60평
- ※ 식당을 제외한 사무실 및 모든 업종 가능
- ※ 주소 : 충남 당진 석문면 대호만로 1508
- ※ 입지조건 : 석문 국가 산업단지 옆 (615 지방도로 인접)
- ※ 이 병 천 회원 : 010-3301-1192

에코두레생협 당진점

건강한 먹을거리! 생명의 밥상

다양한 생활재 할인 행사
당진시 무수동 2길 20 벽우빌딩 1층
041-355-7161

후원계좌

농협 301-0301-3325-91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